

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26】

愼順範 전의원의 회고



▲ 신순범 전 의원을 자택으로 찾아가 회고담을 청취하였다. 왼쪽부터 권애라여사 손녀 김영방씨, 신순범 전의원, 권영의 권애라여사 소속 안동권씨문중 대표, 권애라 여사의 손서.



▲ 김시현·유시태 선생 관계의 행적을 취재코자 안동 출신 풍산유씨문중의 유한성 교수와도 식사회동을 하였다. 오른쪽 첫번째가 김영방씨, 두번째가 유한성 교수.

필자가 이 글을 써 연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탐방취재한 인물이 4선의 전국의회의원 신순범愼順範이다. 그는 전남 여수의 70리길 벽지 해곡海曲에서 1933년에 태어나 술한 화제와 입지전적 일화로 난관을 돌파한 극기의 78세를 살아온, 일면 낙천적인 서민 모험가였다. 우선 그는 남보다 4.5년이 늦었지만 파란의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고 절에 들어가 고시 공부도 했으며 천부의 화술로 대중을 휘몰아 일찍 국회의원의 선거 유세의 달인이 되고 그 비서관이 되었다. 영어웅변대회에 나가 특상을 받고 국회의원의로서 TV방송에 나가 판소리를 열창했으며 국전의 서예 부문에도 세 차례 입선하였다. 4평짜리 차고에서 입시학원생을 상대로 200원짜리 라면장사를 하여 고향 여수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로부터 4선을 거둬하였다. 그러면서 장남의 결혼식 축의금 1억원을 기금으로 시작한 장학재단을 위해 거리의 악사로 나가 수준급의 아코디온 연주로 모금을 하는 기행奇行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1960년 4월에 그러한 신순범은 28세의 늦은 나이로 고학을 하고 있는 동국대 재학생으로

서 4·19의거를 만났다. 처지는 극빈고학생이나 다름없었지만 데모행렬에 또한 빠지지 않고 뛰어들어 좌충우돌하였다. 그러면서 어느 길목이나 광장 어귀이거나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거나 우왕좌왕하는 곳이면 거침없이 자동차 보닛 같은 데라도 뛰어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서나 맨목소리로나 열변을 토해 순식간에 군중을 압도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일사불란케 하였다. 4·19의거가 유혈과 함성의 대단원 끝에 이승만과 자유당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뒤 학생들은 신속히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거기에 전국의회의원 김상현金相賢이 위원장이 되고 달변의 신순범은 그 대변인이 되었다.

이 수습위원회는 의거중 학생대표로 경무대景武臺에 들어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담판을 하여 하야下野 약속을 받아내 이를 관철시킨 김기일金起日·조인호趙仁鎬·조학봉趙鶴奉·구경서具景書 등 5인이 주축인 셈이었다. 신순범은 그와 같은 5인 민중대표의 1인이 되어 경무대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웅변과 연설에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그 대변인이 된 것이었다.

의거 성공으로 이승만과 자

유당 독재정권을 몰아낸 뒤 정치사회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습위의 학생들은 구태의연한 기성세대 정상배와 뜻이 맞지 않으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분노한 학생대표들이 국회로 쳐들어가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런 가운데 4·19후 첫 민의원民議員과 참의원參議員 선거인 7·29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4·19 직후 국사범 석방 1호로 이대통령 저격범 유시태柳時泰와 함께 석방된 김시현은 남에 뒤늦게 그 고향 안동에서 민의원에 출마하게 되었다.

한편 수습위의 학생대표들은 인물 김시현에 대해 호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우선 김시현은 일제하에서 26년 옥살이를 하여 그보다 더 복역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 그리고 해방후에도 8년을 옥중에서 살아 도합 34년을 옥살이로 보냈다. 게다가 이미 8년 전 1952년에 이승만의 무한독재를 내다보고 이를 제거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선견지명으로 부산 충무동에서 거사했다가 실패하자 당시 여러 사람의 협력과 후원을 받았음에도 혼자 뒤집어 쓰고 옥중에서 자기희생중이었다가 극적으로 풀려났다. 이러한 김시현을 이승만 대신의 다음 대통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학생 대표들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김시현은 고향 안동에서 뒤늦게 7·29선거에 입후보했다. 그에게 자금이고 조직이고 있을 것이 없고 있는 것은 주위의 권고 뿐이었다. 안동에서는 당시 11인 후보가 난립했는데 등록순으로 부여하는 기호에서 김시현은 11번이었다. 그러한 김시현에게 사재를 털어 선거자금을 대고 있는 것은 쌀과 고추장사를 하여 다소의 돈을 번 김명학金命學이라는 향인 하나였다.

김시현의 아들 김봉년金峰年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답답한 나머지 상경하여 학생수습위원회로 경무대에 들어갔던 5인 민중대표를 찾았다. 자금도 조직도 없이 선거전에 뒤늦게 뛰어들어 최하위에 있는 아버지 김시현을 4·19회에서 도와 달라는 호소였다. 5인 대표는 즉각 김시현을 도와야 한다고 팔소매를 걸었다. 5인은 당시 학생과 민중을 대표한 만큼 명망이 컸지만 선거운동에 필수인 연설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은 신순

범을 김시현을 돕기 위해 안동에 가는 4·19대표 일행의 1인으로 선발하여 급거 안동행 열차를 탔다. 기차는 밤새도록 8시간을 달려 새벽에 안동역에 도착했다.

김시현은 이미 78세의 고령인데다 그 반생을 옥중에서 보내 오늘날로 치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에나 비견이 될 정도의 처지였다. 고문에 이를 다 뿔뿔했다고도 하고 스스로 말을 앓고자 이를 다 망가뜨렸다고도 하여, 그는 어쨌든 이가 빠지고 없는 틀니인지라 말이 제대로 되어 나오지 않고, 특히 큰소리로 사자후를 했다가는 틀니가 입밖으로 튀어나오는 지경이었다.

안동 시내에는 서울에서 4·19회 대표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확 퍼져 김시현의 유세장으로 광고된 안동백화점 앞에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 그렇게 마련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신순범은 ‘선생님의 주름살과 흰머리는 조국을 위해 싸운 영수증이고 보증수표요 계약서 라는 허두로 개구를 하면서 청산유수의 열변을 토해 삼복더위에 시달리던 청중으로 하여금 찬물을 끼얹은듯 숨을 죽이게 했다. 같이 내려왔던 4·19회 대표들은 곧 되돌아 서울로 올라가고 신순범 혼자만 남았다. 한낮에는 폭염이라 유세를 할 수가 없었다. 주로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데, 낮에는 확성기로 사방을 돌아다니며 저녁 몇시에 어디에서 누구의 선거유세가 있으니 많이 모여 달라고 외쳐댔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학생대표 신순범의 명연설 소문이 퍼져 김시현의 유세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안동의 학가산鶴駕山 오른쪽에서 태어나시어 학우鶴友이신 선생은 만주 별판의 고드름을 반찬삼아 눈물로 밥을 말아 먹으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풍찬노숙風餐露宿하시고, 이미 이승만독재와 4·19같은 비극이 올 것을 선견하시고 8년 전 1952년 부산의 충무동에서 독재와 부패를 씻어낼 거사를…’ 하는 식의 신순범의 달변은 가는 곳마다에서 청중을 압도했다. 이 무렵 안동에서 살던 학생으로서 신순범의 이 찬조연설을 직접 들었던 유한성柳漢晟은 지금 고려대 경영학 교수로서 정년퇴임 후 풍산류씨대종회장豐山柳氏大宗會長 등을 지내고 있는데, 필자에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신순범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안동의 시내지역은 상대적으로 민도民度가 높아 김시현에 관한 이야기와 그 위상이 인지되고 먹혀들어갔다. 그러나 면동面洞 지역이나 벽지 외곽으로 들어가서는 유세나 연설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호

응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자금력과 조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사회대중당社會大衆黨 연합공천의 김충섭金忠燮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난공불락이었다.

신순범은 안동에만 묶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고향 여수에서는 그가 도와야 할 김봉채金奉彩 후보가 고전중이어서 달려오라는 재촉이 성화같았다. 고향 여수로 가 한창 찬조 유세중일 때 안동에서 그곳까지 사람이 찾아왔다. 김시현의 집안 손자가 되는 사람으로 김시현이 붓글씨로 쓴 친서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다. 편지 내용은 ‘신동지가 오지 않으면 입후보 11인 중 6,7위에 그칠 것 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나름대로 여론동향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로 말하는 것이었다. 신순범은 그 서신을 열전 중인 김봉채 후보에게 보였다. 김봉채 후보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안동으로 가라. 나는 낙선패도 좋지만 이 어른은 도와야 한다 고 하였다.

신순범은 당시 여수·부산간을 운행하던 여객선 풍안호風安號를 타고 부산으로 가 그곳에서부터 안동까지는 택시를 대절해 달려갔다. 안동에 도착하니 김시현은 풍산豐山에서 유세중이었다. 4·19회 대표 신순범이 김시현후보의 찬조연사로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안동 일대에 무슨 가설극장에 새긋거리가 들어온 것처럼 선전되었다. 저녁 시간 그 유세장으로 예고된 장소에는 소문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김시현이 대통령저격범 무기수로서 마산에서 기약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옥중사망이 분명한 고령의 부친을 바라지하던 아들 김봉년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쟁이 시발되었던 마산 길거리에서 손수레 책장사를 하며 국밥 등의 사식을 넣어드렸다. 신순범은 ‘이때에 고향 안동사람인 여러분이 한 그릇 국밥을 가망없는 노애국지사에게 넣어드리지 못했던 한을 이번에 한 표를 던져 풀고 가시라’ 호소했다. 이 같은 호소는 한 줄기 전율이 되어 유권자의 심금을 타고 흘렀다.

7·29선거의 법정유세 시각은 1960년 7월 28일 오후 12시 자정子正까지였다. 김시현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이날 해진 뒤 8~9시부터 안동역앞 광장으로 잡혀 있었다. 안동역 광장에는 시각이 다가오자 3천여 청중이 운집했다. 이는 안동에서, 과거 자유당정권의 실력자 이기봉李起鵬이 왔을 때 관제 동원되었던 청중의 규모 이래 처음이라 했다. 연단에 오른 신순범은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회자정리會者定離의

9면으로 계속